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본소득

이건민 반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흥미로운 책이 나왔다. 2022년에 『그건 내 건데: 기본소득, 모두가 조건 없이 찾아야 할 권리』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서를 집필한 이선배 작가가 이번에는 어린이가 쉽고 재미있게 읽을만한 좋은 책인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을 우리 앞에 내놓았다.

이 책은 기후위기, 로봇과 AI로 인한 대량실업 공포,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성불평등이라는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걱정하고 이의 해결을 열망하는 다섯 아이가 가상 게임 공간에서 기본소득에 힘입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다. 강기후, 노본회퍼, 지소유, 극득남이라는 네 아이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또 다른 아이인 공유부, 그리고 토머스 페인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접하고 기본소득이 우리 시대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섯 아이는 기후재난, 일자리 재난, 극심한 소득불평등 및 성불평등과의 대결에서 기본소득을 게임 체인저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에 성공한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일의 결과나 흐름을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154면)을 뜻하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강노지극’(“힘찬 활에서 튕겨 나온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져 부드

러운 비단조차 뚫지 못한다.”라는 뜻, 153면)이라는 고사성어는 시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질서가 매우 공고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작가의 긍정과 믿음을 잘 보여주는 말로 생각된다. 둘째, 기본소득이 허무맹랑한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갖가지 난제들의 해결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기후재난, 일자리 재난, 극심한 소득불평등 및 성불평등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현재의 문제를 실용적 이면서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유용한 해법으로 위치 짓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현재 상황을 하나의 극단으로, 실현 불가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해법을 또 다른 극단으로 놓고, 기본소득을 양극단에서 벗어난 실현 가능하고도 필수적인 정책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매우 영리하고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공유부가 “인간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땅, 하늘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공유부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자연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195면).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7장은 개발주의, 성장주의, 생산(력)주의, 소비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재의 생태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상 게임이라는 설정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맹하나 작가님의 그림은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으면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당성,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다섯 아이는 함께 깨닫고 직접 행동에 나서므로써 네 가지 대결에서 승리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큰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과반수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바로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지지 세력을 전반적으로 넓힘과 동시에 기본소득의 정책화를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론화와 숙의 토론이 그 출발점 중 하나라고 할 때, 그리고 저자가 독서교육의 전문가임을 고려해 볼 때, 추후 기본소득을 의제로 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공론화 과정이나 모의 토론을 담아내는 후속작이 발표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본다.